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수산처 수산해양부 김원장부장(061-338-6131) / 제공일: 2021. 11. 10 (총 2매)

「2021년 내수면 어도관리 발전 토론회」 개최

- 수계 중심 어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모색
- 제4회 어도(魚道)사진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어도의 생태」大賞 시상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풍요로운 내수면 생명 길 복원을 위한 어도 관리를 주제로 「2021년 내수면 어도관리 발전 토론회」를 10일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정부, 지자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현장 토론자로 참석하고, 영상 중계로 200여 명이 실시간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토론회는 내수면 新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계 중심 어도 관리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어도 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토론회는 김동섭 박사(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를 좌장으로, 지속 가능한 어도관리 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주제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주제발표에서는 ▲송미영 박사(중앙내수면연구소)가 어도 실태조사 및 어도관리방안 ▲장민호 교수(공주대학교)가 하천 연결성 확보 및 부처간 협업 방안 ▲최운 교수(군산대학교) 뱀장어 전용어도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방안 ▲서진원 과장(국립환경과학원)이 해외 어도 운영 관리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 종합토론에서는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어도정보 현행화 및 효율적인 어도운영 방안, 뱀장어 자원관리를 위한 사업 확대 방안 등 내수면 어도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 됐으며 참석자들은 해수부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 김인식 사장은 “어도는 수생태계 다양성 확보와 함께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 효과가 있는 만큼, 공사 또한 어도 전문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어도관리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수생태계 복원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지난 10월 15일까지 공모한 「제4회 어도사진 공모전」 수상작 24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작 전시회가 함께 열렸다.

참고 1

어도관리발전토론회 행사사진 및 제4회 어도사진 공모전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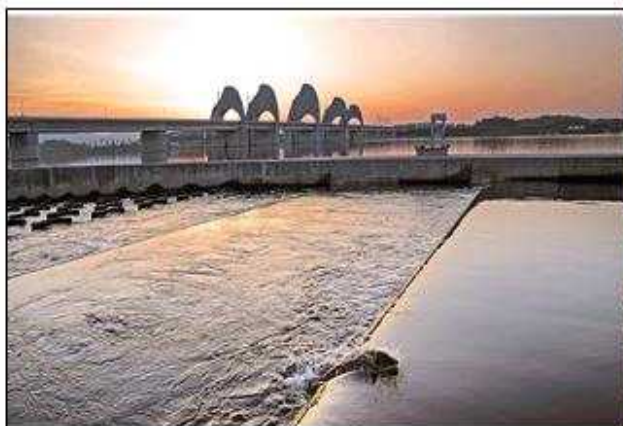
(사진왼쪽부터) 환경부 서진원과장, 공주대 장민호교수, 중앙내수면연구소 송미영박사, 중앙내수면연구소 김정백연구관, 안중식 충남지역본부장, 중앙내수면연구소 허영백연구소장, 김자영 어촌수산처장, 김규전 농어촌개발이사, 해수부 최현호어촌정책관, 충남대 이태원교수, 수자원공사 연구원 김동섭박사, 순천향대 이완옥교수, 군산대 최윤교수, 해수부 양식산업과 오성현 서기관 순.



- 일반카메라 부문 -
<대상> 어도의 생태(최원재)



- 일반카메라 부문 -
<최우수상> 어울림(김이현)



- 일반카메라 부문 -
<최우수상> 석양의 승촌보(이용범)



- 휴대폰 부문 -
<최우수상> 물고기가 있나요?(신성호)